

“문·이과 통합 수능 난이도 예측 불가”

“재판 직관, 합리적 방안 강구”

김오수 검찰총장, 지역 순회 일정 광주 방문

9월 모평 국어 쉽고 수학·영어 어렵게 출제 수능 D-49... 남은 기간 수험생 혼란 불가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맞춰 문·이과 통합으로 치러진 9월 모의평가(모평)에서 국어는 쉽게, 수학과 영어는 어렵게 출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일 실시된 9월 모의평가가 채점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영어 1등급 비율 4.87%

국어 영역은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이 127점으로, 작년 수능(144점)보다 17점 낮아져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모의평가의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146점)보다는 19점이거나 내려갔다. 표준점수는 수험생의 원점수가 평균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주는 점수로,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상승하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하락한다.

국어 만점자 수는 6,423명(1.61%)으로 지난해 수능 만점자 151명(0.04%)보다 크게 늘었다.

국어의 1등급 컷라인은 124점으로 역시 작년 수능(131점)보다 7점 낮아졌다.

국어와 달리 수학과 영어는 작년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됐다.

수학 영역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145점으로 가형과 나형으로 나뉘어 시행됐던 작년 수능(가형과 나형 모두 137점)보다

8점 높아졌다. 절대평가로 등급만 나오는 영어 영역에서는 1등급 학생 비율이 4.87%에 불과했다.

이영덕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절대평가인 영어가 어렵게 출제되면 수시모집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험생이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사 1등급 비율 7.6%

절대평가인 한국사 영역의 1등급 비율은 7.6%로 작년 수능(34.32%)보다 26.72%포인트나 낮아졌다.

탐구영역의 과목별 1등급 컷라인은 사회탐구 65~68점, 과학탐구 65~69점의 분포를 보였다.

직업탐구의 과목별 표준점수 1등급 컷라인은 68~73점이었다.

탐구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은 사회탐구의 경우 동아시아사가 71점으로

가장 높았고 생활과 윤리가 65점으로 가장 낮았다.

과학 탐구는 생명과학 I과 화학II가 71점으로 가장 높고 화학 I이 67점으로 가장 낮았다.

◇국어 화법과 작문 응시 많아

국어의 선택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화법과 작문이 70.1%, 언어와 매체가 29.9%였다. 수학의 선택 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확률과 통계가 52.8%로 가장 높았고 미적분 39.3%, 기하 7.9%였다.

입시업체들은 이번 모의평가의 과목간 난이도가 불규칙하고 절대평가인 영어가 어렵게 출제됐다는 점을 들어 남은 기간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예측 불허의 통합시험”이라며 “과목 간 고른 학습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이 29일 취임 이후 두 번째 지역 검찰청 순회 일정으로 광주 고검·지검을 방문했다.

김 총장은 “고생하는 수사관들을 격려하고 우리 직원이 장검 테러로 큰 피해를 보아 위로하려고 왔다”고 방문 취지를 밝혔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을 비롯해 사건 수사를 한 검사가 직접 법정에서 공소 유지까지 하는 ‘직관’이 제한되고 있다는 일선 검사들의 비판에 대해 “직관으로 인해 일선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수사한 검사가 필요하면 공판도 관여하는 것이지만 일선에 부담을 줄 때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공소 유지를 잘하기 위한 부분은 충분히 지원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이 29일 취임 이후 두 번째 지역 검찰청 순회 일정으로 광주 고검·지검을 방문했다. /최환준 기자



청사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전국 방호장 회의 등을 소집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방검복 등 방아 장비 확충, 급속탐지기 확대 등을 신경 쓰고 근무 형태도 달라져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장동 개발사업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련 로비 의혹에 전·현직 검사들의 연루 여부와 수사 방향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김 총장은 이날 조종태 광주고검장, 박찬호 광주지검장 등과 면담하고 검사·직원들과 간담회를 한 뒤 복귀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달 25일 지방검찰청 순회 첫 일정으로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했다. /최환준 기자

사립유치원 공립전환 문서위조 ‘잡음’

학부모·시민단체, 관계자 고발 “가짜 서류로 사업 추진은 무효”

광주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놓고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와 교육시민단체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위법사항이 있다며 교육청과 유치원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29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 단설 유치원으로 전환키로 하고 지난달 서구 S유치원을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했다.

S유치원은 선정에 앞서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10명 모두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되는 데 찬성했다는 내용의 서류와 함께 사업 신청서를 시교육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운영위원 회의록이 위조됐으며 선정 취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학부모 A씨는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통보를 받지 못했고, 참석하지 않은 학부모 위원의 이름이 회의록에 올라가 항의했다”며 “이후 회의 참석자가 10명에서 6명으로 단숨에 바뀌었다. 가짜 서류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유치원 측은 8월 초 공립 단설 유



북동을 지키는 사람들 북동을 지키는 사람들이 29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고층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변질된 북동 도시정비사업을 규탄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치원으로 전환 사실이 확정됐는데도 이날 16일 키즈 노트 공고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일방적으로 알렸다”며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사업은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학부모와 학벌없는시민모임은 허위문서를 작성한 유치원 관계자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를 묵인한 교육청 관계자를 업무상지위무기 혐의로 광주서부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이나라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지만, 그간 여러 이유로 접종하지 않은 18세 이상 ‘미접종자’의 추가 예약률은 여전히 저조해 이들의 참여가 접종률 목표 달성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0월 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의 90%, 18세 이상 성인의 80%에 대한 접종을 완료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 체계, 즉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합뉴스

백신 미접종자 예약 오늘 마감

내일부터 접종...추가예약률 5.3%

2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18세 이상 미접종자 571만2,554명 가운데 접종 예약자는 30만4,488명으로, 전체의 5.3%에 그쳤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8.8%로 가장 높았고 이어 18~29세 5.7%, 60대 5.3%, 40대 4.9%, 30대 4.5% 등의 순이었다. 고령층인 70대와 80대 이상은 예약률이 각각 3.0%, 1.3%에 불과했다.

정부는 예약 마감일인 30일까지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미접종자들은 다음 달 1일부터 모더나 백신을 맞는다. /연합뉴스

층간소음 ‘갈등’ ...코로나 이후 급증

작년 1,492건 전년비 50.6%↑ ...집콕 생활 영향

아파트 등 다세대주택의 층간소음 피해 신고 건수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 갑)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1,4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6%(755건) 증가했다. 지역과 연도별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광주에서 2016년 360건, 2017년 403건, 2018년 491건, 2019년 443건, 지난해 879건이다. 전남은 2016년 246건, 2017년 331건, 2018년 306건, 2019년 294건, 지난해 613건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광주 689건, 전남 443건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치를 넘어섰다. 노 의원은 “층간소음 살인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는 정부가 손 놓고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상무매매 (상무지구)	장성 토지(매매 분양)	당진신축(원룸매매)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p>1) 40평(전용) 2억 5천 (용1억) 보1천 월100</p> <p>2) 60평(전용) 4억 5천 (용3억) 보2천 월200</p> <p>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6억8천 (용 4억) 월수익 300만 (보4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후,모든업종가능 즉시 입주 시비없음)</p> <p>010-6670-9800</p>	<p>투자확신/강력추천!</p> <p>광주에서 20분 (6M 도로접) 장성담(호) 2분, 장성 IC. 5분</p> <p>총 1760평 (150평,200평,500평, 분할가능)</p> <p>[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p> <p>010-6670-9800</p>	<p>◆ 월수익 750만</p> <p>◆ 연수익 9천만</p> <p>◆ 매매 13억 (용6억 5천)</p> <p>▶ 임대관리 직접해드림 10년간 임대걱정 없음. 대산항10분, 화력발전소 5분 현대오일뱅크, 엘지정유, 임주및공사시작, 엘리베이터 있음, 주인세대있음.</p> <p>010-6670-9800</p>	<p>10월 개강!! 경매 배우실분</p> <p>(특수경매전문)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직업으로 경매(부동산)하실분</p> <p>★10억 물건 -> 3억에 낙찰가능★</p> <p>062-382-5500</p>